

| 편집 후기 |

활자화되어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책을 편찬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한감염학회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대한감염학회 간행이사라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대한감염학회 50년사] 편찬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엇그제 같습니다.

대한감염학회가 창립된 1961년에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던 제가 감히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강문원, 신완식 교수님께서 탄생시키신 [대한감염학회 40년사]라는 敎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최근 10년간 학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기록이나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워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실용성에 가려져 꼼꼼히 학회사를 챙기고 보관하는 아날로그 기록문화가 너무 그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50주년 바로 이 시점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앞으로 60년사, 100년사가 만들어질 때 보다 풍부하고 충실한 내용이 기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년사에 수록될 원고와 기록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후학들이 누리는 현 대한감염학회의 모습이 학회 초창기 시절에 여러 선배님들이 겪어오신 어려움, 학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느끼게 하는 가슴뭉클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흥미진진한 야사를 읽을 때면 너무 재미있어 절로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이 작고하신 전종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과 교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대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찬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편찬위원회를 (김남중, 김양리, 박대원, 염준섭, 이동건, 이재갑, 정두련 교수)와 김소연, 이지희 학회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0세면 知天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도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하늘이 정해주신 일을 계획하는 밑거름으로 [대한감염학회 50년사]가 두고두고 애독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1년 11월

대한감염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정희진**